

# 올 여름 보양식은 완도 전복으로!

“은 국민이 100일간 500g씩 먹자”  
郡, 코엑스에서 ‘전복먹기 선포식’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캠페인 전개



전국 전복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완도군이 전국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전복판촉에 나섰다. 완도군은 지난 27일 서울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전복 데이(day)’ 선언과 함께 ‘5500 전복 먹기 범국민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

이날 선포식에는 김종식 완도군수와 김영록·조영택·이계진 국회의원, 이상변 전남도 정부부지사, 이종구 수협중앙회장, 김부용 군의회의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5500 전복 먹기’ 운동은 앞으로 100일에 걸쳐 5천만 명의 국민이 1인당 500g씩의 전복을 소비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또 오는 7월19일 초복(初伏)을 ‘전복 데이’로 지정하고 삼계탕에 완도산 참전복을 넣은 ‘전복 삼계탕’을 초복날 보양 음식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기존 삼계탕에 전복을 넣은 ‘전복 삼계탕’은 기름기가 제거되고 맛이 더욱 담백해져 최근 인기를 끌

고 있다. 전복은 몇 해전까지 자연산밖에 없어 4kg에 80만 원선을 호가, 소비자가 쉽게 사먹기 어려웠으나 현재는 양식기술 발달로 생산량이 늘면서 1kg에 3만5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 여파로 해산물 소비가 줄면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최근 쇠고기 파동과 각종 식재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청정 바다에서 생산되는 완도산 전복은 안전한 먹을거리이자 웰빙 식품

이다”며 “전복 양식어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대도시 아파트단지 부녀회장 및 사회단체 임직원, 기타 활동력이 풍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복면접’을 위촉하고 직거래 장터 운영과 백화점·대형병원 등과의 수산물 판촉 협약 체결 등 적극적인 소비촉진 전복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복은 동의보감과 중국 본초강목 등에서 자양강장 식품으로 소개돼 있으며 특히 완도산 전복은 청정해역에서 해조류만 먹고 자라 부드럽고 맛이 좋은 것으로 명성이 높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 “불판만 가져오면 한우 불고기가 공짜”

장흥, 내달 4일 오후 6시  
‘중앙로 러브데이’ 행사

“중앙로 러브데이 행사 때 불판만 갖고 오면 한우 불고기를 공짜로 드립니다”

장흥군이 오는 7월 4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중앙로 전 구간의 차량을 통제하고 ‘중앙로 러브데이’ 행사를 연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중앙로 사랑의 날(러브데이)’ 거리문화 행사를 펼치고 있는 장흥군은 7월 러브데이에는 한우 불고기 3천명분(600kg) 무료시식과 함께 할인판매를 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이날 중앙로 전 지역의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불판 등 불고기를 요리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나온 주민들에게 불고기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키다리 피에로가 요술풍선 만들어 선물하고 기념사진 찍기, 풍뎉기, 청소녀 어울마당, 도자기 빚기, 천연염색, 밀짚공예, 페이스 페인팅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도 펼쳐진다.

장흥군 관계자는 “중앙로 러브데이가 정해진 토요일과 더불어 장흥의 명품 생활축제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인들과 협의해 매달 다양한 이벤트의 거리문화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로타리 3610 장흥지구  
30대 회장에 사선환씨

사선환(50·장흥읍) 신흥전기 대표가 지난 26일 국제로타리 3610 장흥지구 제 30대 회장에 취임했다.



사 회장은 “어렵게 살아가는 지역 독거노인과 불우아동을 돕는데 일조 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는 오는 2009년 6월 30일까지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해병대 화순전우회 수증정화활동  
해병대 화순전우회(회장 정대관) 회원 30여명은 29일 화순군 능주면 충신강에서 수증정화 활동을 벌였다. 이날 회원들은 고무보트 등을 이용해 폐지재 등 생활쓰레기 1t을 수거했다. /나명주기자 mjna@

## 민선 4기 2년 결산

■황 주 흥 강진군수

### “축산 엘도라도 구축, 농촌경제 살릴 것”

강진군은 민선 4기 2년동안 투자유치와 관광, 교육 등 각종 정책에서 괄목할 성과를 이뤘다. 그 중심에는 기업형 조직 시스템인 ‘강진 드림팀제’가 자리잡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5월 드림팀제를 도입, 기존의 13개 실과 56 담당을 1실 25개 팀으로 개편하고, 공직사회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

이후 지난해에만 각종 정부 평가에서 24억원의 시상금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으며 정부특별교부세와 특별 지원금도 78억원이나 됐다. 이는 팀제 시행 이전 평균 35억원 안팎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지역 경제를 견인할 투자유치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

강진 성전면에 223억원 규모의 리조트 호텔 건설을 시작으로 ▲강진골프장(988억원), 신전골프장(730억원) ▲강진베이스볼파크(200억원) ▲응운 테마파크(350억원) ▲해수온천·레저 리조트



드림팀제로 공직 체질 개선  
정부 시상·지원금만 78억원

역대 부농 200농가 육성 목표

(690억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장(30억원) 등 대규모 시설들을 줄줄이 유치하고 있다. ‘남도 답사 1번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문화관광 사업의 성장세도

눈에 띈다. 10억원을 들여 조성한 사의재와 하백전시관(37억원), 미향 마당(120억원)은 이미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했으며, 청자문화재는 7년 연속 국가지정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고, 지난해 일본전을 시작으로 올해 미국 6개 도시를 순회중인 강진청자순회전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또 고사 위기에 몰린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올해 3천억원대 매출 달성을 목표로 ‘지역 농어촌경제회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2010년까지 역대 부농 200농가 육성을 목표로 한 ‘2010-200 프로젝트’와 생약초인 황금(黃芩)을 먹여 키운 한우와 닭, 돼지, 오리 사육 등을 통한 ‘축산 엘도라도’ 구축도 꿈꾸고 있다.

황주흥 강진군수는 “남은 민선 4기 2년동안 농촌 경제 회생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 “임시이사회가 학장 밀실 선임” 반발

나주대 교수협, 학장실 점거 일주일째 단식 농성

나주대학 임시이사회가 임기만료 1주일여 앞두고 학장을 선임해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나주대학교수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파견된 6명의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지난 23일 나주대 서모교수를 학장으로 선임하고 이를 학교측에 통보했다.

이들 임시이사들은 30일로 임기가 만료된다.

그러나 교수협의회는 “임시이사회측이 선임학장 선임시 교수협의회와 상호 협의할 것을 지난 1월 합의해 놓고도 이를 무시한 채 밀실에서 학장을 선임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23일부터 학장실을 점거한 채 학장 선임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또 법원에 학장직무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모 임시이사장이 이사회 운영비 등 학교 예산

을 불법 지출했다며 사법기관에 고발 키로 했다. 나주대 A 교수는 “새로운 이사진들이 학교여건에 맞는 학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모 임시이사장은 “1년 전부터 학장공모를 추진했으나 교수

들이 전일 재단측과 이를 반대하는 축으로 나눠져 마찰을 빚고 있다”며 “모든 것이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이사장은 또 “학장초빙과 관련, 수차례에 걸쳐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를 해왔다”면서 “10년동안 계속된 학장 직무대행체제로는 대학 발전을 담보하지 못해 능력과 결단력을 갖춘 학장을 선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해남쌀 구입하면 김치는 덤”

해남쌀을 구입하면 김치를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해남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해남쌀을 구입한 고객 200명을 추첨해 배추김치를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추첨에 당첨된 고객에게는 해남 화원농협의 e-맑은 배추김치 1박스/5

kg가 택배로 배송된다. 해남군은 “쌀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노력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맛 좋은 해남쌀과 해남김치도 여름철 입맛을 잃은 소비자들의 식탁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Advertisement for '보람상조' (Boram Sangjo) featuring a man in a suit and text about family support and insurance.

Advertisement for '극락전 납골당' (Gulakjeon Nalgol-dang) featuring a bell and text about funeral services and urns.